

GS칼텍스, 전상호 사장 승진발령

부사장에 이재영 인재부문장 임명 ... 전무 3명에 상무 5명 인사

GS칼텍스는 12월9일 전상호 생산본부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전상호 사장은 연세대 화공학과 출신으로 1977년 GS칼텍스에 입사해 싱가포르법인 부사장, 원유·수급본부장 등을 거쳐 생산공장을 지휘하는 생산본부장을 맡아왔다.

이밖에 이재영 인사부문장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김완빈 수급부문장(상무)은 전략구매부문장(전무), 정찬수 경영기획부문장(상무)은 법인사업부문장(전무), 허세홍 싱가포르현지법인장(상무)은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 및 현장 책임경영을 통해 대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단행됐다”면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 구성원 육성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사장 생산본부장 전상호 ▲부사장 인재개발실장 겸 인사부문장 이재영 ▲전무 전략구매부문장 김완빈, 법인사업부문장 정찬수, 싱가포르현지법인장 허세홍 ▲상무 생산기획부문장 김성민, 석유화학생산부문장 신승수, 자금부문장 윤길상, 서부소매사업부문장 최석호, 수급부문장 최영호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9>